

'92년도 정보산업 정책방향



백 만 기
상공부 정보진흥과장

1. 서 론

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태동이후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83년부터 시작된 하드웨어(컴퓨터) 산업이 '9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의 급속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91년에는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성장이 거의 멈춘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

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개인용 컴퓨터의 생산은 정체된 반면 국산 중형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수출이 개시되는 등 우리산업의 구조조정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통합산업 등을 포함하는 정보처리산업도 업계의 자가발전 노력과 정부의 육성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향후 도약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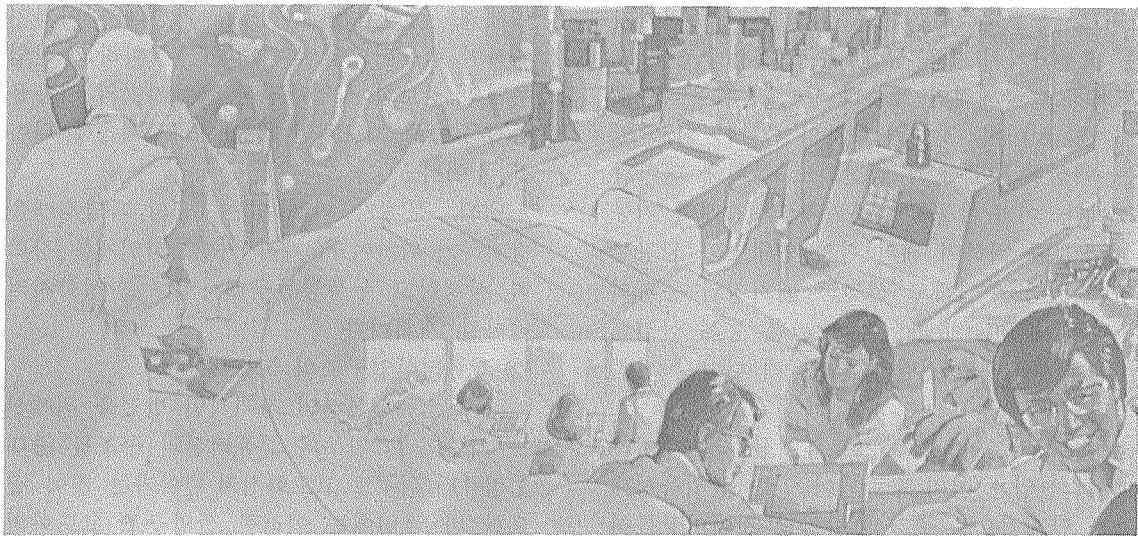
'91년도에 정부가 입체적으로 추진한 정보산업육성정책을 분야별로 개관하면 하드웨어산업의 경우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는 바, 특히 국산 고속중형 컴퓨터 개발, 마더보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핵심부품 국산화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제조업체원의 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연구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향후 정보화사회의 견인차가 될 산업환경을 조성하였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경우 민간 DB 업체에 대하여 정보화자금을 지원하였고 KOEX내에 DB상설전시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국민들의 DB 마인드 고취를 도모하였다.

또한 시스템통합산업의 기본 육성시책도 수립, 추진하였다.

이러한 육성시책과 더불어 지난 일년동안 전자부품기술연구소, 정보산업표준원, 유통정보센터, 포항공대의 정보산업대학원, 정보시스템산업진흥협회, 한국정보처리개발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협회 등 각종 정보산업 관련기관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지게 되었다.



'95년까지는 100개의 민간 DB업체를 발굴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금년에는 이러한 육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정보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92 정보산업정책방향

1) 기본추진전략

지금 세계는 개방화, 자유화, 정보화의 물결이 급속히 밀어 닥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치단계에 있는 정보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술개발투자의 증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시행, 민간의 자율적인 기술개발투자유도 등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국책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민간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

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인력양성정책의 추진이다.

정보산업의 특성상 전문화된 인력이 없이는 산업육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인력을 분야별, 기능별로 세분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세째, 정보산업 수요의 확충이다.

정보산업의 수요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 무역 등의 각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상공부는 기 추진하고 있는 무역업무자동화 사업,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산업정보화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정보화정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네째, 정보산업의 부문별 육성정책의 추진이다.

하드웨어분야인 컴퓨터산업의 경우 '89년 이후 악화되어 온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정책의 초점은 두고 추진해 나아갈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인 PC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조성하고 3

2비트, 노트북 PC, 펜 PC 및 첨단 주변기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위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적인 표준화 등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는 핵심부품의 조기 국산화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제품기획 및 판매의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현지 연구소와 공장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선진국 벤처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해 산업의 국제화 추세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정보처리분야 중 소프트웨어산업과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산업육성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특히 정보산업의 꽂인 시스템통합산업의 정착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의 대장등록제도를 실시하는 등 국내 종합정보시스템 산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2) 부문별 세부추진 계획

가. 하드웨어(H/W)산업 육성

① 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의 착실한 추진

컴퓨터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금년에 추진할 컴퓨터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더보드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자동화를 촉진시키고 486 노트북 보드 등 신제품개발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5년간 공업발전기금에서 20억원씩을 지원해 나아갈 방침이다.

둘째, 핵심부품 및 고성능 주변기기를 국산 개발해 나아가기 위하여 대일무역 역조개선을 위한 제2차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계획과 연계하여 주요 핵심부품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상공부에서 설립한 전자부품개발사업단의 18개 과제에 자기부품, 보조기억장치 등의 분야를 포함시켜 집중적인 개발전략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세째, 국산컴퓨터 수요를 확충해 나아가기 위하여 컴퓨터도입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무역의 정보화 사업추진시 국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네째, 문제가 되고 있는 PC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PC가격 가이드라인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부품공동구매사업도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② 컴퓨터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내 컴퓨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PC위주의 컴퓨터산업 구조를 중대형컴퓨터 위주로 고도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바 금년에는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 추진하고 있던 고속 중형컴퓨터 개발사업을 가속화시켜 나아갈 것인 바 동사업은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의 공동개발사업으로서 국내업계 주도로 ETRI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가 '90년대 중반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슈퍼미니컴퓨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91년 7월 시작된 동 사업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의 기초연구 및 개념설계 사업이 이미 지원을 받아 완료되었으므로 금년에는 동 사업을 1차년도 사업시스템 설계사업에 접목시켜 개발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내수시장에서 국산중·대형컴퓨터의 보급을 확대하고 컴퓨터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컴퓨터전문 리스(임대) 회사의 설립 또는 기존 리스회사의 컴퓨터 리스업무로의 특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바,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③ 기타 하드웨어산업의 육성

우선 두뇌집약형사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오락문화창조 및 무분별한 수입복제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전자게임기 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체제의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조합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오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프로그램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을 강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소위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계측기기산업발전 5개년계획(90~'95)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금년을 계측기산업의 도약의 해로 설정하여 전문업체를 적극 육성해 나아가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부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대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나. 정보처리 산업육성

정보처리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처리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업발전법」 및 한시법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 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상공부)과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과기처)」만으로는 정보처리산업분야(S/W, DB, SI 등)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치단계의 정보처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상공부에서는 (가칭) 「정보처리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인 바 동 법은 작년도에 검토되었던 「정보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기반을 두면서 명실상부하게 정보처리산업의 종합진흥법으로서 제정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정책의 지속 추진

우선 작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소프트웨어연구단지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93년 8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통신정보시스템 산업 단지사업 협동조합의 주체가 되어 경기도 용인에 5만 3,000평 규모로 건설계획인 바 금년 하반기 부터는 건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동 사업의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인력을 분야

별 기능별로 분류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정보산업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대학교내 전산원, 컴퓨터기술원 등 전담기관, 신설 학원별로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작년에 설립된 정보시스템산업 진흥협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보처리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시협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정보처리 업체의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갖도록 할 것이다.

②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육성대책의 지속 추진

우선 민간 DB산업의 육성을 위해 작년에 설립된 DB산업협회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 바, 협회 구성원의 보강을 위해 회장사를 새로이 영입하고 협회의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나아갈 것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보강된 DB협회가 DB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인 바 상공부에서는 DB협회가 각종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작년에 개설된 「DB상설전시장」도 금년까지 계속 연장 운영할 것인 바 현재 세부적인 운영방안의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민간 DB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 DB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산업기술정보원의 DB산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DB업계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산업기술정보원의 DB 구축시에도 민간 DB업계를 적극 활용하여 '95년까지는 산업기술정보원의 협력업체로서 100개의 민간 DB업체를 발굴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③ 시스템통합(SI) 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

금년에는 정보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사업자 대장등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바, 동사업은 SI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고 SI사업자의 사업 고도화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SI사업자

간의 협업화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다. 산업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정보화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기능별 정보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나아가서는 산업정보화의 향후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는 정보화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 바, 동 협의회는 우선 상공부와 업종별협회, 정보산업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될 것이나 향후에는 그 추진성과를 검토하여 구성원의 확대도 고려할 방침이다.

② 중소기업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정보화 5개년 계획의 제3차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 규모는 240억원이 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은 중점 정보화 지원대상 업체선정 및 추가지원, 정보화진단·지원기능 강화, 중소기업종합지원 DB 구축 서비스, 국산컴퓨터 사용권장 및 우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세부운영계획은 정시협이나 DB협회 등을 통해 민간업계에게 상세히 설명할 방침으로 있다.

③ 기타 정보화·자동화 사업의 추진

무역자동화사업은 작년도에 입법된 「무역업

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년에는 무역자동화 전담회사를 설립하여 금년하반기부터는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표준상품 등록코드 및 소스마킹 실시를 유도해 나아가고 POS시스템 도입확대를 위해 POS기기 설치 및 POS기기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지역정보화를 위해 9개 지역정보센타의 운용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구성 확대 및 지역별 연구회 운용도 활성화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라. 정보산업표준화 사업의 본격추진

UNIX, OSI, EDI 등 세계 3대 표준화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준화제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정보산업표준원('91. 10설립)을 중심으로 정보산업의 표준화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표준원내의 「정보산업표준화평의회」운영을 활성화 할 것인 바, 동평의회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학계, 업계 및 이용자)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표준화연구 및 국가표준심의에 참여하여 국제간 첨예화된 문제발생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피땀흘려 이룬성장 놀자판에 무너진다